

5·18 행불자 가족들 DNA 확보 나선다

광주시가 9년여만에 5·18 행방 불명자 가족들의 유전자(DNA) 확보에 다시 나선다.

추가 확보한 유전자는 지난 1989년 1월 광주 동구 녹동마을 인근 일명 '부영산' 기슭에서 발견됐던 '부영산 유골'과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된 무명열사 5기, 주남마을에서 발견된 유골 37기의 신원을 밝힐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월과 4월 사이 공고를 낸 뒤 5·18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혈액 채취에 나선다.

시는 전남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용역을 맡겨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5·18 행불자 124명의 가족, 299명의 혈액을 확보해 보관하고 있다.

이는 1990년부터 7차에 걸쳐 접수된 행불자 242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시는 아직까지 유전자를 확보하지 못한 118명의 행불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혈액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9년 만에 5번째로 행불자 가족들의 유전자를 확보하면, 시는 우선 '부영산 유골'과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 중인 무명열사 5기, 주남마을에서 발견된 유골 37기의 유전자와 대조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기존에 확보했던 행불자 가족 299명의 유전자와 대조 작업을 맡겼으나 일치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5·18을 전후해 행방불명자로 신고된 이는 수백명에 달하지만 신사를 거쳐 관련자로 인정된 이는 82명에 그친다.

지난 2002년 유전자 감식을 통해 무명열사 6명의 신원이 밝혀졌다. 지금도 행불자로 인정된 76명의 주검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이를 근거로 공고를 낸 뒤 유전자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유가족들에게 혈액 채취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언론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가족 찾기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18기념재단이 중심이 돼 추진 중인 암매장 발굴 조사에서 유해가 발견될 경우도 대비해 최대한 많은 유전자를 확보할 것"이라며 "5·18 행불자 찾기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유가족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영산 유골'은 지난 1989년 1월13일 광주 동구 녹동마을 인

광주시, 유전자 확보 못한 118명 가족 혈액 채취 부영산 유골·무명열사 5기 등 신원 확인 열쇠

근 '부영산' 기슭(해발 400m)에서 발견됐다.

유골의 두께에는 지름 5cm 가량의 구멍이 뚫려 있었고 1980년 5월 계엄군이 버린 것으로 보이는 녹슨 탄환 150여발과 M1 탄창 30여 개 등이 나왔다.

유골을 신고한 사람은 윤영길(1963년생)씨. 그는 1980년 5월말께 뱀을 잡기 위해 부영산에 올랐다가 피투성이인 채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의 주검을 발견했다.

검에 질린 윤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낙엽과 풀, 흙으로 시신을 덮은 채 산에서 내려왔다. 1987년 7월 동생과 뱀을 잡던 중 다시 현장을 찾았고, 두개골이 밖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근처 바위 아래 유골을 묻었다.

이후 윤씨는 1989년 1월11일 주남마을에서 발견된 암매장(추정) 유

골 발굴 작업을 TV로 보고 용기를 내 5·18광주민주항쟁 부상자 동지회에 제보했다. 시신을 발견한 지 9년 만에 이뤄진 신고였다.

부영산 일대는 5·18 당시 7공수와 11공수가 주둔했던 곳이다.

부영산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주남마을에서는 1980년 5월23일 계엄군의 두 차례 버스 총격 사건으로 수십명이 숨졌다. 살아 남은 2명은 마을 뒷산으로 끌려가 사살된 뒤 암매장됐다. 이 시신은 항쟁이 끝난 그해 6월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부영산 유골' 발견 당시 5·18 행방불명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유골을 조사했던 서울대 이정민(법의학) 교수는 "구멍 난 두개골에서 총상 흔적이 안 보이고 사망 시기는 길게 봐도 5년 이내"라고 못 박았다.

얼마 뒤 이를 뒤집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유골의 두개골 부분을 검정한 연세대 김종렬(치의학) 교수는 "40대 초반 남자로 발견 시점(1989년 기준)으로부터 최소 6년 전(1983년 이전) 사망했다"는 내용과 '공수부대의 총격 또는 끈봉에 맞아 숨졌을 가능성'을 담은 감정 보고서를 광주지검에 제출했다.

같은 해 5월 이정민 교수가 5년 이상 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지만 '부영산 유골'은 이미 대중의 관심밖에 놓인 뒤였다. 유골의 5·18 연관성도 끝내 가려지지 않았다.

윤씨의 제보와 검체에 제출된 감정 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부영산 유골'은 금니를 한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사망 당시 흰색 운동화를 신었고 녹색 계열의 체크무늬 양복 바지, 흰색 남방셔츠를 입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78년 이후부터 84년 사이 만들어진 24mm 필터 담배를 피웠다.

서은홍 기자



강추위 속 고드름 제거 서울 마포소방서 소방대원이 5일 서울 성산동의 한 건물 외벽에 달려있는 고드름을 제거하고 있다.

국민 75% "미투(Me-Too) 운동 지지"

최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고백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나도 피해자'라는 의미의 이른바 미투(Me-Too)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5일 리얼미터가 미투 운동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지지한다'(적극 지지 54.8%·

지지하는 편 20.0%)는 74.8%, '반대한다'(적극 반대 5.0%·반대하는 편 8.1%)는 13.1%로 분석됐다. '잘 모름'은 12.1%였다.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미투 운동'에 대한 지지 여론이 우세했다. 성별로는 여성(76.2%)이 남성(73.3%)에 비해 지지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90.1%), 30대(82.2%), 50대(74.4%), 20대(73.9%), 60대 이상(57.7%)에서도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80.5%), 서울(79.6%), 부산·경남·울산(72.2%), 광주·전라(69.8%), 대구·경북(66.7%), 대전·충청·세종(63.4% vs 15.4%)의 순으로 지지 여론이 대다수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응답률은 4.5%였다.

영광서 SUV 2대 미끄러져...4명 중·경상

5일 오전 10시께 영광군 보령면 신천리 22번 국도(광주~영광 방면) 편도 2차선 도로 내 교차로에서 유모(36)씨가 몰던 싼타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단독사고 직후 뒤처리를 하고 있던 유씨와 동승자 박모(36)씨를 뒤따르던 김모(49)씨의 무쏘 차량이 덮쳤다.

이 사고로 두 차량 운전·동승자 4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폭설에 왼쪽으로 굽은 교차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SUV 차량들이 연이어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절도 발각되자 집주인 매린 40대 구속

주택에서 금품을 훔치다가 때마침 귀가한 집주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집주인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치상·절도)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10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귀가한 B(23)씨와 마주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가슴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30분께 북구 운암동 한 주택 2층에 들어가 거실과 작은방에 있던 지갑 2개를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지역 빈집 6곳에서 17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도 혐의로 3년 6개월 간 복역한 뒤 지난해 9월 출소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현금·지갑·가방만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새벽시간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2층 주택만 털어왔으며, 지난 3일 B씨의 집에서 서랍을 뒤지던 중 귀가한 B씨와 마주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지만, B씨 형제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6분만에 제압당한 뒤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하다 피해자에게 불합허 복역한 점, 출소 직후 재범해온 점 등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불법 도박 운영 베트남인 3명 구속

전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5일 사설 베트남 로또사이트에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도박 등)로 A(4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도박에 참여한 B(3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베트남 현지 로또사이트에서 발표하는 당첨 번호의 마지막 두자리 수를 맞춘 사람에게 투자금의 최고 70배까지 지급해주는 사설 도박을 개설, 참가자들에게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상한액 없이 투자금을 입금받아 수수료 5%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챙긴 뒤 투자금을 대국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에 참여한 이들은 이주 여성과 불법체류 근로자들로, 빚 독촉에 시달리다 가정 불화까지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환 기자

대형견 끌고가 협박한 50대 구속

기르던 대형견을 데리고 가 자신의 경찰수배 사실을 알린 신고자를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협박) 혐의로 강모(58)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전 2시30분께 제주 시내에 살고 있던 A씨 집에 자신이 기르던 대형견을 데리고 가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벌금을 내지 않아 경찰수배 조치된 강씨는 A씨의 신고로 수배 사실이 들롱나자 양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강씨는 길이 120cm에 달하는 큰 개를 새벽시간에 끌고가 "죽여버리겠다, 물어버려"라고 명령해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